

정연택 명지전문대학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교수

흙을 빛는 자연 예술가

자연에 있던 흙이 불을 만나 단단해져 음식재료를 담아내는 도자기는 탄생부터 활용까지 건강과 직결된다.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얼마나 건강할까? 지난 7일 통의동의 도자기카페에서 정연택(57세) 명지전문대학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교수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도자기 선생님으로

흙처럼 자연 느낌을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는 소재도 없다. 흙은 가소성(외력에 의해 형태가 변한 물체가 외력이 없어져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때문에 만지면 만지는 대로,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고유의 모형을 만들어 낸다. 도예는 이러한 흙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예술이자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친근한 도구다. 정연택 교수는 도예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러한 도예의 멋과 매력을 널리 알린다. 일차적으로 그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도예 철학을 배워나간다. “도자기는 즐거움의 미학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철학을 닮아 건강한 흙에서 즐거운 도자기가 빚어져 탄생한다.

정연택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뿐 아니다. 그는 2003년부터 5~6년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도자기 선생님’이 되어 서울시립 뇌성마비 종합복지관에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도자기의 소재가 흙이다 보니 부드럽게 만지며 친밀감을 키울 수 있지요. 또한,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워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찾아주는 거죠.”

지금 ‘도자기 선생님’ 자리는 제자에게 물려주고 그는 또 다른 가르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전시되는 ‘버금이전’을 통한 가르침인데, 으뜸 아래 버금이란 아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으뜸’의 버금으로 버금이 작가들을 키워 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뇌성마비 종합복지관과 북한 탈북 싱글맘을 돕는데 쓴다. 지난해에는 배우 지진희, 진미령 등도 그에게 도자기 빚는 것을 배워 작품을 전시했다. ‘버금이전’이 된 그는 올해 글로벌 버금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도자기가 아프리카 사람의 손을 만나 탄생

되는 버금이 작품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흙을 벗 삼고 자연과 소통해야 도자기가 완성된다

가르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그는 “도자기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연택 교수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즐겁지 못하면 결코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란다. “도자기를 빚는 것은 농부와 같은 삶입니다. 흙을 벗 삼아 자연과 소통해야 하고 도자기가 완성되는 시간을 인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즐겁고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통해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좋은 작품이어야 하는 이유는 도자기는 주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재료를 담는 용기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래 공예라는 것이 생활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도구가 발전하여 예술로 된 것인 만큼 도자기는 생활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흙을 빛는 예술가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수로, 재능을 사회 환원하는 재능기부자로 정연택 교수의 삶이 건강하게 빚어져 간다. MEDICHECK



“도자기를 빚는 것은
농부와 같은
삶입니다. 흙을 벗
삼아 자연과
소통해야 하고
도자기가 완성되는
시간을 인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즐겁고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통해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